

외솔 최현배의 씨가름 체계 성립 과정 연구*

주향아** · 강계림***

|| 차례 ||

- I. 서론
- II. 대상 자료
- III. 국어학사상의 최현배의 씨가름 체계에 대한 평가
- IV. 씨가름의 비교 분석
- V. 씨가름의 비교 분석 결과 정리
- VI.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말본』 유인본 연구를 중심으로 외솔의 씨가름 체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세 종류의 유인본과 『우리말본』 온책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으며 부족한 자료는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을 통해 보충하였다. 본고는 각 씨의 정의 및 갈래에 주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솔의 씨가름 체계는 1928년 이전으로 추측되는 유인본에서부터 이미 준종합주의의 입장에서 확실한 이론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틀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씨의 뜻매김과 갈래에서 보이는 내용상의 공통점은 씨가름 체계의 성립 시기를 『우리말본』 온책보다 9년 이상 앞당겨 준다. 몇몇 씨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외솔의 씨가름 체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음을 알려 준다. 본고는 『우리말본』 유인본 연구를 통해 씨가름 체계가 성립되어 나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살펴보고, 그 결과 외솔의 씨가름 체계가 국어학사에서

* 연구를 위해서 유인본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서상규 교수님(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과 준절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제2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가지는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최현배, 우리말본, 유인본, 씨가름, 품사

I. 서론

본 연구는 현대 국어학의 근간이 되는 외술 최현배의 문법 체계 중 특히 품사 체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리말본』 온책과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말본』의 유인본을 중심으로 외술의 품사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말본』은 외술이 동래고등보통 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1920년 무렵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35년에 온책 원고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본』으로 대표되는 외술의 문법 체계는 한 순간에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수없이 깊고 고치는 과정을 겪었던 만큼, 유인본 연구를 통해 그 성립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는 『우리말본』의 집필 시기에 출간된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중등조선말본』과 같은 외술의 다른 문법서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들 자료는 유인본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다.

외술의 품사 체계는 이전의 문법서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다른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품사 분류의 이론적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품사의 정의와 분류는 최근까지도 국어학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바, 현대 국어학의 바탕이 되는 외술의 품사 체계를 다시금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인본 연구를 통해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

1)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Ⅱ』, 태학사, 816쪽.

분, 조사의 하위분류 등의 문제에 대해 외술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국어학사상의 최현배에 대한 평가가 『우리말본』 온책의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본고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II. 대상 자료²⁾

본고는 『우리말본』(1937)과 그 유인본을 중심으로 외술의 품사 체계가 성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서상규(2011)를 통해 알려진 『우리말본』 둘째매의 유인본 종류는 다음과 같다.³⁾ 유인본들의 약호는 서상규(2011)를 따른다.

T3: 『우리말본』2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T4: 『우리말본』, 연세대학교 박물관 기록보존소 소장

T5: 『우리말본』(특별보존본) 1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T6: 『우리말본』(특별보존본) 2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1), 51~99쪽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7책 145』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8책』

각 유인본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먼저 T3은 첫째 가림인

2) 이 부분에서 대상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후에 본문에서 대상 자료를 언급할 때에는 뒤에 발행 연도 기재를 생략하였다.

3) 서상규(2010)를 통해 알려진 『우리말본』 첫째매의 유인본 T1, T2는 소리갈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씨의 가름”의 일부를 담고 있고, T4는 두째 가름 ‘이름씨’부터 다섯째 가름 ‘움직씨’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T5와 T6은 한 책의 분책인데 T5는 두째 가름 ‘이름씨’부터 다섯째 가름 ‘움직씨’의 일부를, T6은 ‘움직씨’의 나머지 부분을 담고 있다. 서상규(2011)에서는 이들 유인본들의 서지적 특성 및 주요 갈말과 내용 등을 비교해서, 유인본들이 “T3>최현배(1930)>T4>T6>우리말본(1937)”의 순서로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립 순서를 받아들여 논의를 전개한다.

한편 T4는 쪽 번호, 글씨체 등의 변화를 통해 최소한 3종류의 유인본을 하나로 묶어 만들어진 유인교정본임을 알 수 있다. 서상규(2011)에서는 이들의 쪽수를 구별하기 위해 T4A·B·C로 기호를 부여하였는데, 본고 역시 이를 따른다. 그런데 T4가 여러 유인본을 묶은 것이라는 사실은 T4의 성립 순서를 가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현배(1934)를 유인본, 『우리말본』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최현배(1934)는 T4A와 T4B가 만들어진 시기의 중간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은 유인본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서, 유인본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유인본이 일부만 남아 있다는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유인본에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오직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 그리고 『우리말본』 온 책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Ⅲ. 국어학사상의 최현배의 씨가름 체계에 대한 평가

그간 외술의 『우리말본』이 갖는 의의와 그에 대한 평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외술의 씨가름 체계를 학자들이 국어학사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 의의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허웅(1991)에서는 외술의 씨가름 체계를 주시경의 체계와 비교했다. 허웅(1991)은 외술의 체계가 주시경의 씨가름 체계와 큰 변화는 없으나 ‘임씨’가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로 세분되고, ‘잇씨’의 일부와 ‘끗씨’가 ‘움직씨’나 ‘그림씨’의 씨끝으로 다루어졌으며, 잡음씨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토씨’가 설정된 것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⁴⁾ 그러면서 외술의 『우리말본』이 20세기 국어학의 크나큰 금자탑이라고 평가한다.

선행 학자들과의 연속선 속에서 외술의 『우리말본』을 평가한 연구로는 고영근(1995)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말본』의 씨갈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을 바탕으로 하되, 『중등조선말본』 및 『중등교육조선』(1936)을 수용해서 완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품사 체계로 들어가면 외술이 주시경(1910), 김두봉(1916), 야마다(1922) 등 앞선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이 ‘학설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그 공적을 찬양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영근 1995:296)’는 것과 달리 당대의 다른 문법서들까지 폭넓게 살펴서 외술의 문법 체계를 평가하였다.

한편, 남기심(1996)에서는 『우리말본』이 앞서 나온 다른 모든 문법서들과는 체계를 달리하는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남기심(1996)은 외술이 절충적 체계를 확립하고, 국어 문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했으며, 씨가름에 있어서는 이전의 문법서들과 달

4) 허웅(1991)에서 주시경의 학문이 외술에게로 계승되었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외술의 체계는 종합적 풀이 방법에 근거하여 씨끝을 독립된 씨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시경의 체계와는 커다란 차이를 가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리 품사분류의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품사를 체계화한 것을 국어 문법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우리말본』 이전의 문법서들은 이론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품사를 단순히 나열하여 보여주었다면, 『우리말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씨가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술의 품사체계를 평가한 연구로 김완진 외(1985), 김석득(2000), 이광정(2008)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완진 외(1985)는 외술의 품사분류가 체계적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전 문법에서는 아무런 이론적 전개도 없이 행해지던 품사분류가 외술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며, 이 기준이 비록 외국의 문법서에서 설명되던 것이기는 하나 이를 최초로 도입하여 논리정연한 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석득(2000) 역시 『우리말본』이 품사분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론적 원칙을 확립하고 논리적으로 이를 진행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뛰어난 점으로 보았다. 또한 외술의 씨가름 원리가 명백하다고 말하며, 씨가름이 연역법적 계층적 구조 방법을 통해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광정(2008)은 주시경 문법이 많은 후계학자들에게 연계되었으나 그 문법의 근본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배경에서, 외술의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은 첨가어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품사체계의 창시라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술에서 품사분류의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어와 품사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서 살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술의 품사 체계를 평가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외술이 주시경을 비롯한 당대의 학자들과 일본 문법 등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외술의 품사 체계는 이전 학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이론

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여 독자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및 『우리말본』 등에서 보이는 외술의 완성된 품사 체계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유인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외술의 품사 체계가 성립되어 나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외술의 품사 체계가 국어학사에서 가지는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V. 씨가름의 비교 분석

1. 씨의 뜻매김과 기준, 갈래

〈표1〉 씨의 뜻매김

T3	씨란 것은 월의 成分의 單位이니 그 以上은 더 가를 수 없는 소리의 한 덩어리이다. 더 가를 수 없다는 말은 더 가를 것 같으면 월의 成分으로의 單位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⁵⁾ 4b~5a 이 뜻매임 ⁶⁾ (定義)을 쓸 것 같으면 토도 씨가 되는 同時에 語幹語枝(接頭語接尾語)같은 것은 월을 만드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되지 아니 하나니라. 5a~5b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우리 조선말은 이른바 添加語이니, 본대부터 말과 말 사이의 關係를 보이는 토(助辭, 虛辭)라는 것이 있어 完全한 獨立한 씨(날말)가 되나니, 씨의 뜻을 매기라면(定義하라면) 모름지기 토까지 두루 包容할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⁵³ 씨란 것은 월의 成分의 單位이니, 그 以上은 더가를수 없는 소리의 한 덩어리이다. 54
중등조선말본	날말을 그 구실(職能)과 뜻과 꼴(形式)을 따라 몇 갈래로 갈라 놓은 것을 씨라 하나니, 우리말의 씨에는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죽씨 어평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의 열 가지가 있다. 16

5) 원본에는 이 부분을 ‘씨란 것은 월의 成分의 單位이니 그 이상 더 갈아 놓을 것 같으면 그만 월의 成分의 單位로의 資格을 잃어버리는 소리의 한 덩어리이니라’라고 고친

우리말본	씨(날말)는 말의 單位(날덩이, unit)이니, 따로따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함(話)과 글월(文)을 이루는, 直接의, 材料가, 되는 것이니라. 148 씨란 것은, 더 또가를 수 없는, 말의 날덩이(單位)이니, 반듯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말함과 글월을 이루는 直接의 거리(材料)가 되는 것이니라. 153
------	--

〈표2〉 씨가름의 기준과 갈래

T3	씨의 가름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役目, 職能), 곧 씨 서로의 결힘(關係)과 월을 만드는 일의 결힘(關係)을 주장으로 삼고 그에 딸오는 꼴(形式)과 뜻(意義)을 불힘(從)으로 삼아서 이 네 가지가 서로 결히는 본새를 標準으로 삼아 決定하여야 한다. 24a 우리말의 씨난은 임, 읊, 언, 언, 억, 늣, 겻, 잇, 맺의 아홉가지로 한다.7) 25a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씨(品詞)의 가름(分類)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役目, 職能) 곧 씨 서로의 關係와 월(文)을 만드는 作用의 關係를 주장(主)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形式과 意義를 불힘(從)으로 삼아서, 이 네가지가 서로 關係하는 狀態를 標準으로 삼아 決定하여야 한다. 60 조선말의 씨를 먼저 크게 갈라, 임자씨(主體語, 體言), 풀이씨(陳述語, 用言), 꾸밈씨(修飾語), 결힘씨 혹은 토씨(關係語 혹은 助辭)의 네가지로 한다. 61
우리말본	씨(品詞)의 가름(分類)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職能, 『役目』)을 주장(主)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꼴(形式)과 뜻(意義)을 불임(從)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가 서로 關係하는 狀態를 대중(標準)으로 삼아, 決定하여야 하느니라. 159~160 조선말의 씨를 먼저 크게 갈라, 임자씨(主體詞, 體言), 풀이씨(說明詞, 用言), 꾸밈씨(修飾詞), 결림씨 혹은 토씨(關係詞 惑은 助詞)의 네 가지로 하느니라. 163

외술의 씨의 뜻매김과 분류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시경의 『국어 문법』(191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1910)에서는 ‘기는 낫 말을 이르는 것으로 씀이니 여러 가지 몬이나 일을 따르어 이르는 말을 각각 부르는 이름으로 씀이라.’라고 하며 ‘난은 分의 뜻과 같은 말이니 각 낫 기의

흔적이 있다.

6) 원본에는 ‘맥임’을 ‘매김’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7) 원본에는 이 부분을 ‘우리말의 씨를 먼저 크게 갈라 임자씨(主體語, 體言), 꾸밈씨(修飾語), 결힘씨 혹은 토씨(關係語 或은 助辭)의 네 가지로 함’이라고 교정한 흔적이 있다.

방탕(性質과 한 가지의 뜻으로 씀이라) 따르어 결에(族, 同種, 類의 뜻과 같은 말) 되는 분별이 있음을 이름이라.(주시경 1910:27)'라고 하여 각 낱말의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외술은 T3에서부터 '월의 成分으로의 單位'라는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씨를 정의하고 있으며, 씨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구실'을 중심으로 하고 '꼴과 뜻'을 보조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외술이 품사 체계를 세우는 이론적 바탕을 이미 『우리말본』이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마련해 두었음을 의미한다.

씨의 뜻매김에서는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서 이미 토를 씨로 분리시키는 입장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3에서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중등조선말본』, 『우리말본』에 이르면서 씨의 뜻이 점차 정리되어 간다. 씨가름의 기준과 갈래는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이 상당히 유사하고, 『우리말본』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T3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외술에게 씨가름의 기준과 갈래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현배 씨가름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준종합주의는 스승인 주시경의 체계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인데, 준종합주의는 『우리말본』이 처음 성립되던 시기부터 외술이 일관적으로 고수해온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T3에서 나타나는 씨가름의 용어를 보면 아직은 주시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하지만 각주 7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를 교정한 흔적이 있고, 그 내용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외술이 주시경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용어를 고안해내기 위해 고심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 T3 안에서도 예에서 보인 25a에서는 주시경의 씨가름 용어를 사용했지만, 26b~27a로 가면 외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므로⁸⁾ 외솔이 자신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미 T3이 성립된 시기부터였다.

그런데 <표1>과 <표2>를 보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우리말본』이 각기 다르다. T3은 순우리말로 서술되어 있지만,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은 한자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다시 『우리말본』으로 오면 일부는 순우리말로, 일부는 한자어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외솔이 문법 체계를 정리하면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즉 외솔은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순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해나갈 것인가를 『우리말본』을 저술하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다.

씨의 갈래를 보면 T3에서는 씨를 ‘이름씨, 대이름씨, 켜씨, 움죽씨, 어떻씨, 이다씨, 어떤씨, 어찌씨, 늑감씨, 듄토, 뚝음토, 잇음토’의 12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⁹⁾ 그런데 이것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오면 ‘이름씨, 대이름씨, 켜씨, 움죽씨, 어떻씨, 감음씨¹⁰⁾,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의 10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다씨, 늑감씨’가 ‘잡음씨, 느낌씨’로 바뀐 것과 토씨의 하위분류가 ‘듄토, 뚝음토, 잇음토’에서 ‘토씨’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외솔은 ‘이다씨’를 ‘무엇이 무엇이라고 잡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최현배 1930:85)’에 ‘잡음씨’로 용어를 고쳤다. 그리고 세 가지 토씨를 하나의 토씨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단위에 비하

8) T3의 26b~27a에서는 “답에 앞의 네가지의 가름을 다시 가늘게 갈아서 이름씨, 대이름씨, 켜씨, 움죽씨, 어떻씨, 이다씨, 어떤씨, 어찌씨, 늑감씨, 듄토, 뚝음토씨, 잇음토의 열두 가지로 함”이라는 서술이 보인다.

9) T3에서 외솔이 처음에는 주시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고치고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므로(각주10 참고) 본고는 T3에서 씨를 12 가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본다.

10) T3의 27a에서 ‘이다씨’를 ‘잡음씨’로 교정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서는 ‘잡음씨’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잡음씨’의 오식임을 알 수 있다.

야 암만해도 지나친 세분인 감이 있을 뿐아니라, 뒷날에 씨를 표준단위로 하여 글월을 쉼 적에 관념어가 아닌 관계어가 여럿이 연속하게 되어 독서 상 불편이 있을 듯하므로 이를 다시 가르지 아니하(최현배 1930:91)’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움즉씨’만 ‘움직씨’로 용어가 바뀌어 『우리말본』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외솔이 『우리말본』의 온 책이 출판되기 이전부터 이미 정돈된 씨가름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임자씨의 뜻매김과 갈래

〈표3〉 임자씨의 뜻매김

T3	임자씨(主體語 或 體言)는 概念을 들어내는 낱말이니 월의 임자가 되는 힘을 가지며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늘 월의 뼈다귀(骨格)를 일우나니라. 27b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임자씨는 概念을 들어내는 낱말이니, 월의 임자가 되는 힘을 가지며,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늘 월의 뼈다귀(骨格)를 일우나니라. 63
T4A	X
중등조선말본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는 월(文)의 임자(主體)가 되는 것이니, 이 따위를 어울려서 임자씨라 하느니라. 17
T4B	X
T5	X
우리말본	임자씨는 概念을 들어내는 낱말이니, 월의 임자가 되는 힘을 가지며,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늘 월의 뼈다귀(骨格)를 이루느니라. 165

〈표4〉 임자씨의 갈래

T3	임자씨는 다시 그 뜻으로 보아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의 세 가지로 가른다. 28b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임자씨는 그 뜻으로 보아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의 세 가지로 가른다. 64

T4A	X
중등조선말본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는 월(文)의 임자(主體)가 되는 것이니, 이 따위를 어울려서 임자씨라 하느니라. 17
T4B	X
T5	X
우리말본	임자씨는, 그 뜻으로 보아,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의 세 가지로 가르느니라. 167

임자씨의 뜻매김은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우리말본』이 모두 일치한다.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은 임자씨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는데, T3에서 임자씨의 갈래를 설명하면서 뒤에 따르는 설명의 순서를 바꾸라는 메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반영되어 새로운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는 T3이 시기적으로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앞선다는 서상규(2011)의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중등조선말본』은 간략한 체계의 구현을 위해 뜻매김과 갈래를 따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월의 임자가 되는 것을 임자씨로 보고, 그 갈래에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를 두고 있다. 서술상의 미미한 차이를 제외하면 T3에서 『우리말본』 온책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은 외술이 통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임자씨의 정의 및 하위분류를 T3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이미 정립했음을 의미한다.

1) 이름씨

〈표5〉 이름씨의 뜻매김

T3	제임 ¹¹⁾ 씨란 것은 일이나 몬의 제 이름을 들어내는 말이란 뜻이니 곧 일과 몬의 概念을 바로(直接) 代表하여 있는 임씨이다. 30a
T4A	X
중등조선말본	일과 몬(物)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을 이름씨라 한다. 17

T4B	X
T5	이름씨(名詞)란 것은 일이나 몬(物)의 이름을 날아내는 말이란 뜻이니 곧 일과 몬의 概念을 바로(直接으로) 代表하여 있는 임자씨(體言)이니라. 1a
우리말본	이름씨(名詞)란 것은 일이나 몬(物)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란 뜻이니, 곧 일과 몬(物)의 概念을 바로(直接으로) 代表하여 있는 임자씨(體言)이니라. 239

이름씨에 대한 내용은 T3에서부터 『우리말본』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T3에서는 ‘제임씨’라고 했던 것이 T5부터는 ‘이름씨’로 바뀌어 있는데, 이 용어의 변화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T3이 성립된 시기부터 외솔이 꾸준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이고, 각주 10번에서 밝히고 있듯 T3의 시기에 벌써 주시경의 용어가 아닌 외솔의 용어로 바뀌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름씨의 체계는 『우리말본』 온책이 초판되기 이전부터 상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1)

T3 : 여기서 나는 「이, 바, 것…」 들을 대임이 아니오 제임의 특별한 것이라 하여 한날의 獨立한 씨의 資格을 주어서 다루(取扱)었다. … 어떤 境遇에는 그것을 발가지로 보아서 우에 말과 습하여서 한 탄말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便利한 줄로 생각한다. 37a

T4A : 여기서 나는 「이, 바, 것……」들을 대이름씨가 아니오 제이름씨의 특별한 것이라 하여 한날의 獨立한 씨의 資格을 주어서 다루(取扱)었다. … 어떤 境遇에는 그것을 발가지로 보아서 우에 말과 습하여서 한 탄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便利한 줄로 생각한다. 30a~30b

T5 : 이름씨는 그 運用上 獨立性的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完全한 이름씨(完全名詞)와 不完全한 이름씨(不完全名詞)와의 두 가지로 나누느니라. … 不完全한 이름씨란 것은 … 「것」과 「바」와 같은 것들이다. 10a~10b

11) 원본에는 ‘제임’을 ‘이름’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우리말본 : 이름씨는 그 運用上 獨立性的 있고 없음을 따라, 完全한 이름씨(完全名詞)와 不完全한 이름씨(不完全名詞)와의 두 가지로 나누느니라.
 … 不完全한 이름씨란 것은 … 「것」과 「바」와 같은 것들이다. 249

그런데 (1)에서 나타나듯이 외솔은 T3, T4A에서는 특별한 이름씨로 보았던 「이, 바, 것…」 등을 『중등조선말본』부터는 완전한 이름씨와 불완전한 이름씨로 나누어 불완전한 이름씨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T5 및 『우리말본』 온책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T4A가 성립되던 시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이름씨와는 다른 종류로만 인식되고 있던 것들이 『중등조선말본』과 T5가 성립되는 시기에 와서 불완전한 이름씨라는 체계로 갖추어지고, 이것이 『우리말본』 온책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본 T4A가 『중등조선말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으며, 외솔이 씨가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찾아내어 세밀하게 분류하는 안목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 대이름씨

〈표6〉 대이름씨의 뜻매김

T3	대입 ¹²⁾ 씨란 것은 이름대로 쓰는 씨란 뜻이니 말하는 이, 글씨는 이가 제(自己)를 標準을 삼아서 몬이나 일을 가리켜서 그를 間接으로 날아내는 形式的 씨이니라. 37b
T4A	대이름씨란 것은 이름대로 쓰는 씨란 뜻이니 말하는 이, 글씨는 이가 제(自己)를 標準을 삼아서 몬이나 일을 가르켜서 ¹³⁾ 그를 間接으로 날아내는 形式的 씨이니라. 31a
중등조선말본	몬(物)의 이름 대신에 그것을 가리키는 낱말을 대이름씨라 한다. 17
T5	대이름씨(代名詞)는 임자씨 가운데의 꼴임자씨(形式體言)의 한 가지이니, 어떠한 一定한 일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든 일몬을 다만 形式的으로, 一般的으로 가리키는 씨이니라. 17b
우리말본	대이름씨(代名詞)는 임자씨 가운데의 꼴임자씨(形式體言)의 한 가지이니, 어떠한 一定한 일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든 일몬을 다만 形式的으로, 一般的으로, 가리키는 씨이니라. 257~258

대이름씨의 뜻매김은 T3, T4A가 동일하고, T5, 『우리말본』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T3, T4A에서는 ‘몬이나 일을 간접으로 나타내는 씨’라고 설명을 했지만, T5에 오면 이것이 임자씨 가운데 형식체언에 해당하는 풀임자씨임을 밝히며 간접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씨라고 설명한다. 즉 『중등조선말본』과 T5가 성립된 시기에 이르러 외술의 대이름씨에 대한 뜻매김이 완전하게 정리되었다. 그 갈래도 『중등조선말본』과 T5에 이르러서 거리뿐 아니라 높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가 완성되었다.

3) 셈씨

〈표7〉 셈씨의 뜻매김

T3	셈임 ¹⁴⁾ 이란 것은 셈을 들어내는 임 ¹⁵⁾ 씨이다. 46a
T4A	셈씨란 것은 셈을 들어내는 임자씨이다. 40a
중등조선말본	일과 몬의 셈(數)를 나타내는 낱말을 셈씨라 한다. 17
T5	셈씨란 것은 셈을 들어내는 임자씨이니라. 39b
우리말본	셈씨란 것은 셈을 들어내는 임자씨이니라. 282

셈씨의 뜻매김은 T3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우리말본』과 동일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T3을 보면 46b 뒤에 손글씨로 쓴 끼운쪽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2) 원본에는 ‘대임’을 ‘대이름’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13) 원본에는 ‘가르켜서’를 ‘가리켜서’로 고친 흔적이 있다.

14) 원본에는 ‘셈임’을 ‘셈씨’로 고친 흔적이 있다.

15) 원본에는 ‘임’과 ‘씨’ 사이에 ‘자’를 써 넣은 흔적이 있다.

(2)

T3 : 우리말에서도 썸씨가 어떤씨 노릇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꼴이 그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 꼴이 달라지는 것이 예사이니, 이런 것들은 어떤씨로 잡겠지마는 그 남아의 경우에는 썸씨는 다른 임자씨들과 마찬가지로 월의 임자노릇을 하는 터인즉 임자씨의 한 갈래로 보아서 썸씨라 함이 옳으니라. 46b 뒤의 끼운쪽(손글씨)

이는 T4로 가면 본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3)

T4 : 우리말에서도 썸씨가 어떤씨 노릇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꼴이 그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 꼴이 달라지는 것이 예사이니 이런 것들은 어떤씨로 잡겠지마는 그 남아에 경우에는 썸씨는 다른 임자씨들과 마찬가지로 월의 임자노릇을 하는 터인즉 임자씨의 한 갈래로 보아서 썸씨라 함이 옳으니라. 41a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외술이 썸씨의 체계를 세우면서 어떤씨 노릇을 하는 썸씨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T3에서는 본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떤씨 노릇을 하는 썸씨가 썸씨의 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후에 손글씨로 써서 T3에 끼워 놓았다가 T4에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술이 오늘날 이른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썸씨로, 수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씨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T4의 41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내용은 『조선중등말본』에서도 발견되는데 서술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4) 『중등조선말본』

썸을 나타낸다고 다 썸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썸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이 임자씨가 아닌 것은 썸씨가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한 해」, 「두 사람」의 「한」,

「두」는 켜씨가 아니요 어떤씨이니라. 31-32

이러한 서술은 T5에 가면 ‘켄씨가 어떤씨 노릇을 하는 일이 있다’라고 바뀌며 그 꼴이 켜씨와 달라지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등으로 나누어져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다. 이것은 『우리말본』 온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 통해 켜씨의 체계는 T3부터 갖추어져 있었으나, 외솔이 어떤씨와 켜씨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고민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서술상의 차이를 통해 T4A 이후에 「조선중등말본」이 성립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켜씨의 체계는 T5가 성립된 시기에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3. 풀이씨의 뜻매김과 갈래

〈표8〉 풀이씨의 뜻매김

T3	풀이씨(陳述語)(用語)란 것은 일과 몬을 풀이하는(說明하는) 힘을 가진 씨를 이름이니 대개는 다 일과 몬의 屬性조차 함께 들어내나니라. 50a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풀이씨(說明語, 陳述語, 用言)란 것은 일과 몬(物)을 풀이하는(說明하는) 힘(力)을 가진 씨를 이름이니, 대개는 다 事物의 屬性조차를 함께 들어내나니라. 66
T4A	X
중등조선말본	옴족씨 어떻게 잡옴씨는 월(文)의 풀이(說明)가 되는 것이니, 이 따위를 어울려서 풀이씨라 하느니라. 18
T4B	X
T5	X
우리말본	풀이씨(說明詞, 陳述語, 用言)란 것은 일과 몬(物)을 풀이하는(說明하는) 힘(力)을 가진 씨를 이름이니, 대개는 다 事物의 屬性조차를 함께 들어내나니라. 169

〈표9〉 풀이씨의 갈래

T3	우리는 풀이씨(用言)를 값아서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움죽씨(動詞)와 어떻게(形容詞)와 잡음씨(指定詞)의 세 가지로 가른다. 59b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우리는 풀이씨(用言)를 갈라서, 우에 말한바와 같이 움죽씨(動詞)와 어떻게(形容詞)와 잡음씨(指定詞)의 세가지로 가른다. 83
T4A	X
중등조선말본	움죽씨 어떻게 잡음씨는 월(文)의 풀이(說明)가 되는 것이니, 이 따위를 어울러서 풀이씨라 하느니라. 18
T4B	X
T5	X
우리말본	우리는 풀이씨(用言)를 갈라서,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움죽씨(動詞)와 어떻게(形容詞)와 잡음씨(指定詞)의 세 가지로 가르느니라. 208

풀이씨의 뜻매김과 갈래는 T4, T5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T3부터 『우리말본』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꽤 이른 시기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등조선말본』에 한하여 서술상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용어와 뜻매김, 갈래 등이 T3에서 『우리말본』 온책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이는 입자씨와 마찬가지로 월의 풀이가 된다는 통사론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풀이씨의 정의가 초기부터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 움죽씨

〈표10〉 움죽씨의 뜻매김

T3	X
중등조선말본	일과 몬의 움죽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움죽씨라 한다. 17
T4B	움죽씨는 움죽임을 나타내는 풀이씨를 이릅이다. 여기에서 이릅바 움죽임이라 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니 <…> 뜻있는 움죽임(有意動作)도 있으며 <…> 自然物의 뜻없는 움죽임(無意動作)도 있다. 또 우에든 보기의 움죽임은 다 풀있는 움죽임(有形動作)이지마는 <…> 풀없는 움죽임(無形動作)도 있다. 1a

T5	움직씨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풀이씨를 이름이니라. 여기에서 이른바 움직임이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니 <…> 뜻 있는, 또 풀 있는 움직임(有意有形의 動作)도 있으며 <…> 뜻 인 ¹⁶⁾ , 그러나 풀 없는 움직임(有意 無形의 動作)도 있으며 … 自然의 作用(일함)도 있으며 <…> 生物의 모양(狀態)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있다. 51a~51b
우리말본	움직씨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풀이씨를 이름이니라. 여기에서 이른바 움직임이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니 <…> 뜻있는, 또 풀있는, 움직임(有意有形의 動作)도 있으며 <…> 뜻있는, 그러나 풀없는, 움직임(有意 無形의 動作)도 있으며 <…> 自然의 作用(일함)도 있으며 <…> 生物의 모양(狀態)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있다. 294

T4B와 T5, 6에는 풀이씨에 대한 부분이 없고 움직씨에 대한 부분만 있다. T3과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까지는 움직씨를 독립시켜 설명하지 않고 풀이씨 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끝바꿈도 풀이씨의 끝바꿈으로 한꺼번에 다루었는데, T4B에 오면 움직씨가 따로 독립되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4B의 이전에도 움직씨를 독립적으로 다루었을 수 있으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T4A의 마지막 장인 44b에는 ‘넷째 가름 풀이씨’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이 제목을 펜으로 지운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T4B의 움직씨 제목을 보면 ‘둘째 조각 움직씨(動詞)’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 조각’을 펜으로 ‘다섯째 가름’으로 교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T5, 6에 반영되어 있다. 또 『우리말본』 초판본의 씨갈 순서를 보면 ‘다섯째 가름 움직씨(動詞)’라는 순서를 볼 수 있고, 씨갈의 셋째 조각부터 여섯째 조각까지 각각 임자씨, 풀이씨, 꾸밈씨, 걸림씨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하위 갈래에 해당하는 씨들을 따로 독립시켜 뒷부분에서 상세히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중등조선말본』과 비교하여 보면, 움직씨의 뜻매김은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 온책에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서술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중등조선말본』이 T4B보다 먼저

16) 원본에는 ‘인는’을 ‘있는’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성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중등조선말본』이 T4A보다 후에 성립되었다고 추측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2장의 분석 대상에 대한 소개에서도 밝혔듯이 T4는 세 유인본을 하나로 묶은 결과이므로 T4에 묶인 세 유인본의 각각의 성립 시기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중등조선말본』이 쓰이던 시기부터 움직씨와 어떻씨를 풀이씨에서 따로 떼어 설명하는 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움직씨의 뜻매김에서 T4B를 보면 뜻있는 움죽임과 뜻없는 움죽임, 풀있는 움죽임과 풀없는 움죽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T5에서는 뜻있는, 풀있는 움죽임과 뜻있는, 풀없는 움죽임, 자연의 작용, 생물의 모양(狀態)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¹⁷⁾ 즉 뜻없는 움죽임이 없어지고 뜻은 있으나 풀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의 작용이나 생물의 모양이나로 분류 체계가 변화한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뜻없는 움죽임으로 분류했던 ‘흐르다, 피다, 뜨다’도 뜻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후에 움직씨와 함께 풀이씨에 해당하는 어떻씨나 잡음씨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야하지만, 유인본들에는 해당 부분이 없어 『우리말본』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힌다. 다만 풀이씨를 설명하는 다른 부분에서 그 용어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있다. 이미 우리가 <표10>에서 보았듯이 ‘움직씨’는 ‘움죽씨(T3, T4B)-움직씨(T5, 우리말본)’의 순서로 용어가 변화했다. 그런데 ‘잡음씨’나 ‘어떤씨’는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17) T4B에서는 뜻있는 움죽임으로 ‘가다, 읽다, 잡다’를 들고 있고, 뜻없는 움죽임으로 ‘흐르다, 피다, 뜨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풀있는 움죽임이라고 설명한다. 풀없는 움죽임으로는 ‘생각하다, 사랑하다, 뜻하다’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T5에 오면 뜻있는, 풀있는 움죽임에서 ‘가다, 읽다, 잡다’를, 뜻있는, 풀없는 움죽임에서 ‘생각하다, 사랑하다, 뜻하다’를, 자연의 작용으로 ‘흐르다, 피다, 뜨다’를, 생물의 모양으로 ‘났다, 죽다, 자다’를 보이는 것으로 바뀐다.

‘잡음씨’는 ‘젓씨(T3)-이다잡음씨(T3)-잡음씨(T4, T5, 우리말본)’로, ‘어편씨’는 ‘언씨(T3)-어편씨(T4)-어편엿음씨(T5)-어편씨(T5, 우리말본)’로 용어가 정립되는 모습을 유인본을 통해 볼 수 있다.

2) 어뎡씨

〈표11〉 어뎡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X
중등 조선말본	일과 몬의 바탕(性質)과 모양과 있음의 어뎡함을 나타내는 낱말을 어뎡씨라 한다. 18
우리말본	어뎡씨(形容詞)는 일과 몬의 바탕(性質)과 모양(狀態)과 있음(存在)의 어뎡함을 풀이하는 씨(풀이씨)이니, 무엇이 어뎡하냐?에 對하여, 그 어뎡함을 對答함에 該當한 말이니라. 642

어뎡씨의 뜻매김에 대한 부분은 유인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 온책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 체계의 성립 시기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다.

3) 잡음씨

〈표12〉 잡음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X
중등 조선말본	일과 몬이 무엇이라고 잡는(指定하는) 낱말을 잡음씨라 한다. 18
우리말본	잡음씨(指定詞)란 것은 무엇이 무엇이라고 잡는(定하는) 풀이씨를 이 름이니라. 748

잡음씨에 대한 부분도 어뎡씨와 마찬가지로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

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잡음씨를 풀이씨의 하나로 보는 관점과 ‘무엇을 무엇이라고 잡는’다고 설명하는 기능적 용법에 의한 정의는 두 책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4. 꾸밈씨의 뜻매김과 갈래

〈표13〉 꾸밈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꾸밈씨(修飾語)는 꾸미는(修飾하는) 씨란 뜻이니, 제스스로가 월(文)의 뻐다귀가 되지 못하고, 항상 월의 뻐다귀되는 씨(곧 으뜸씨)나 월을 꾸미는 구실(職能)을 하는 낱말이다. 85
중등 조선말본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는 다른 말을 꾸미는 씨이니, 이 따위를 어울려서 꾸밈씨라 하느니라. 19-20
우리말본	꾸밈씨(修飾詞)는 꾸미는(修飾하는) 씨란 뜻이니, 제스스로가 월(文)의 뻐다귀가 되지 못하고, 항상 월의 뻐다귀되는 씨(곧 으뜸씨)나 월을 꾸미는 구실(職能)을 하는 낱말이니라. 214

〈표14〉 꾸밈씨의 갈래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꾸밈씨는 그 性質과 구실로 보아 어떤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嘆詞)의 세가지로 가른다. 86
중등 조선말본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는 다른 말을 꾸미는 씨이니, 이 따위를 어울려서 꾸밈씨라 하느니라. 19-20
우리말본	꾸밈씨는, 그 性質과 구실로 보아, 어떤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動詞)의 세 가지로 가르느니라. 215

꾸밈씨의 하위 갈래와 뜻매김은 유인본에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미루어 보아 T5의 순서가 『우리말본』과 동일하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유사한 것에서 적어도 T5가 성립된 시기에 이미 꾸밈씨에 대한 내용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즉, 이미 꾸밈씨에 대한 내용은 완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의 뜻매김이나 갈래를 볼 때 시기적으로 T5보다 앞선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서의 설명이 『우리말본』과 같다는 사실이 이미 이에 대한 내용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더해준다. 『중등조선말본』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보다 시기적으로 뒤쳐지지만 그 서술이 더 간략한 것은 『중등조선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말본』과는 다르므로 씨가름을 매우 간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구성 체제의 면에서 『우리말본』이 T5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T5가 성립된 시기에 꾸밈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날의 『우리말본』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 어떤씨

〈표15〉 어떤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X
중등 조선말본	일과 몬이 어떠한 것이라고 금하는(限定하는) 낱말을 어떤씨라 한다. 18 이와 같이 어떤씨는 임자씨의 우에서 그 뜻을 꾸미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123
우리말본	어떤씨(冠形詞)는 임자씨(體言)의 우에서 그 임자씨가 어떠한 것이라고 꾸미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물음에 對하여, 그 內容을 對答하는 말에 該當한 씨이니라. 783

어떤씨의 뜻매김은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둘의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씨가 임자씨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떤씨가 나타내는 의미를 함께 고려한 설명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유인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씨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중등조선말본』이 출판되기 이전부터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어떤씨의 갈래에 대한 부분은 『우리말본』 온책 이외에 어느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등조선말본』에서 어떤씨의 하위 갈래를 제

시하고 있지는 않아도 예문에 녹아 있는 어떤씨의 설명으로 보아, 외솔이 1934년에 『우리말본』 온책과 흡사한 하위분류의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을 추측해 볼 따름이다.

2) 어찌씨

〈표16〉 어찌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X
중등 조선말본	주장으로 풀이씨의 우에 붙어서 그것이 어떠하게(어찌) 움직인다고, 또는 어떠하게(어찌) 어떠하다고 그 뜻을 금하는(限定하는) 낱말을 어찌 씨라 한다. 19 이와 같이 어찌씨는 풀이씨 우에서 그 뜻을 꾸미는 것이다. 125 다른 어찌씨 우에서 그 뜻을 꾸미는 것도 있다. <...> 어떤씨를 꾸미는 일도 있다. 126
우리말본	어찌씨(副詞)는 풀이씨(用言)의 우에서 그 아래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들어남을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하게』(어찌) 하(되)느냐?의 물음에 對하야, 그 內容을 對答하는 말에 該當한 씨이니라. 796~797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에 나타나는 어찌씨의 뜻매김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1934년 이전에 이미 어찌씨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은 서술 방식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1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어찌씨의 갈래에 대한 내용은 유인본에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갈래가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중등조선말본』에서도 어찌씨의 하위 갈래를 분명하게 두고 있지 않아서 『우리말본』에서 나타나는 체계의 성립 시기를 밝힐 수 없다. 『중등조선말본』에서는 꾸미는 말에 따라 그 예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다소 간략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상

간략하게 서술을 한 것인지, 아직 그 갈래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3) 느낌씨

〈표17〉 느낌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X
중등 조선말본	무엇에 느끼어서 소리내는 낱말을 느낌씨라 한다. 19
우리말본	느낌씨(感動詞)는 마디(節)나 월(文)의 우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를 이름이니, 그 꾸미는 內容(뜻)은 여러 가지의 느낌하고 부름(呼)과 대답과의 첫머리하고를 들어내는 것이니라. 823

느낌씨의 뜻매김은 『중등조선말본』에서 『우리말본』으로 오면서 더 상세하고 정확해진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 『중등조선말본』에서는 단순히 ‘무엇에 느끼어서 소리내는 낱말’이라고 설명을 한 데 비해 『우리말본』에서는 다른 씨의 개념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느낌씨가 가지는 통사적 특성과 의미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5. 걸림씨(토씨)의 뜻매김과 갈래

〈표18〉 걸림씨(토씨)의 뜻매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걸림씨 또는 토씨(關係語 又は 助辭)는 낱말 곧 임자씨 풀이씨 더러는 꾸밈씨에 붙어서 그것들의 걸림(關係)을 밝게 보이는 씨를 이름이다. 89
중등 조선말본	주장으로 임자씨(體言) 앞에 붙어 그 앞의 말과의 걸림(關係)을 나타내는 낱말을 토씨라 한다. 20
우리말본	걸림씨 또는 토씨(關係詞 又は 助詞)는 다른 생각씨 곧 임자씨, 풀이씨 더러는 꾸밈씨에 붙어서 그것들의 걸림(關係)을 밝게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라. 218

〈표19〉 걸림씨(토씨)의 갈래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걸림씨는 다시 갈래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으로써 씨가름의 單位를 삼나니, 이 씨가름의 單位로서는 걸림씨라 하지않고, 오로지 토씨(또는 줄여서 토)라고만 부르나니라. 91
중등 조선말본	토씨에는 자리토씨, 도움토씨, 이음토씨, 느낌토시의 네 가지가 있다. 132
우리말본	걸림씨는 다시 갈래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으로써 씨가름의 單位를 삼나니, 이 씨가름의 單位로서는 걸림씨라 하지 않고, 오로지 토씨(또는 줄여서 토)라고만 부르느니라. 231

토씨는 외술의 씨가름 체계 중에서 상당히 나중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인본에서는 그 뜻매김과 갈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 『우리말본』에 나타나는 토씨의 하위분류에 대한 언급을 비교해 보면, 그 서술이 각기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외술은 T3의 씨가름표에서 토씨를 ‘듬토, 돕음토, 잇음토’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와서는 다시 가르지 않고 ‘토씨’ 하나로 보는 체계로 바뀌었다. 하지만 다시 『중등조선말본』에서는 ‘자리토씨, 도움토씨, 이음토씨, 느낌토씨’의 네 가지로 토씨를 가르고 있으며, 『우리말본』에서는 씨갈을 총괄하여 서술하는 앞부분과 걸림씨만을 다루고 있는 뒷부분에서 서로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우리말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씨가름 체계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동일하게 토씨를 더 가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걸림씨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장에 가면 토씨는 그 하는 구실에 따라 네 가지로 가른다고 하며 『중등조선말본』과 같이 하위 갈래를 둔다.

(5) 『우리말본』

토씨는, 그 하는 구실(職實)의 다름을 따라, 자리토씨(格助詞), 이음토씨(接續助詞), 도움토씨(補助詞), 느낌토씨(感動助詞)의 네 가지로 가른

다. 834

이를 통해 외술이 준종합주의의 입장에서 토씨를 따로 독립시켰을 때 그 하위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말본』 온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유인본에서는 토씨에 대한 서술을 살펴볼 수 없지만, 최소한 『중등조선말본』이 성립된 이후까지도 토씨는 그 세부적인 체계가 완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말본』에서 토씨에 대한 서술이 앞과 뒤에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말본』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술이 『우리말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고 만들어 왔음을 알게 해준다. 전체 씨가름 체계를 보이는 부분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의 내용과, 세부적으로 각 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본고가 다루고 있는 각각의 유인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면, 『우리말본』은 결국 외술이 오랜 기간 동안 써 온 여러 원고들이 묶여서 만들어진 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V. 씨가름의 비교 분석 결과 정리

『우리말본』 온책과 유인본,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중등조선말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술의 씨가름의 기준과 갈래는 이미 T3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3의 시기부터 임자씨, 풀이씨의 큰 체계는 이미 잡혀 있었고, 유인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에 보이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꾸밈씨, 걸림씨(토씨)의 큰 체계도 T3의 성립 시기에 준하는 때에 이미 세워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 품사로 들어가면 뜻매김과 갈래 등이 시기에 따라 약간씩 수정되어가고, 그것이 『우리말본』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인본에는 외술의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

는데, 그의 고민들은 오늘날 우리가 국어문법 체계에서 고민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 또 유인본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름씨는 T3이, 대이름씨는 『중등조선말본』과 T5가, 셈씨는 T5가, 움직씨는 T4B가 성립되던 시기에 체계가 이미 어느 정도 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품사에 한해서는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 온책의 서술을 비교하면서 『중등조선말본』과 유인본 사이의 성립 시기를 활용하여 체계의 성립 과정을 추정해 보았다.

한편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술의 씨가름 체계가 주시경(1910), 김두봉(1916) 등 앞선 학자들의 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국어학사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본고는 외술의 씨가름 성립 과정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씨를 단어의 성질에 따라 나눈 주시경(1910)과 달리 외술은 T3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인본 성립 초기부터 문장의 성분이 되는 단위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분류 기준으로는 ‘구실’을 중심으로 하여 ‘꼴과 뜻’을 함께 고려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외술이 준종합주의를 바탕으로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를 구분하고, 씨가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전 학자들의 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씨가름의 용어 및 체계가 주시경(1910)을 비롯하여 일본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외술이 이미 T3에서부터 수차례의 교정을 통해 독자적인 씨가름 용어를 정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씨가름 체계에 있어서는 T3에 주시경(1910)의 9품사 체계가 거의 그대로 수용된 바 있으나, 이것은 외술만의 용어와 체계로 수정된 후 『우리말본』 온책으로 이어졌다. 또한 4장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듯이, 씨가름의 하위 갈래에 대한 기술상의 변화는 독자적인 씨가름 체계의 성립을 위한 외술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결국 본고는 유인본을 중심으로 한 외술의 씨가름 체계의 성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외술이 당대 학자들이 세운 이론 위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방향으로 자신만의 씨가름 체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본고는 『우리말본』 온책 초판본과 그 유인본들을 대상으로 외술의 씨가름 체계가 어떻게 완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유인본들에 온책의 내용이 모두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을 보충 자료로 삼았다. 그 결과 외술이 유인본 성립 초기부터 스승인 주시경의 체계와 달리 준종합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으며,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를 구분하여 씨를 가르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외술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고민했고 T3의 시기에 독자적인 씨가름 용어를 정립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몇 차례에 걸친 용어의 수정 끝에 성립된 것들도 있었다. 유인본에서 드러나는 씨가름 체계의 성립 과정은 외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범주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당시부터 날카로운 안목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씨의 하위 갈래의 체계는 T3이나 T4A에서는 끼운쪽이나 메모 등을 통한 고민의 흔적과 수정할 내용이 다수 보이나, T5에 오면 그것들이 대부분 정리되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말본』과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선어의 품사분류론』과 『중등조선말본』을 참고할 때 씨의 갈래는 뜻매김보다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5와 『우리말본』 온책의 차례나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T5가 성립되던 시기에 벌써 『우리말본』의 씨가름 체계가 온책과 같거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서상규(2011)에서 T3의 성립 시기가 적어도 1928년이나 그 이전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를 받아들여 생각해보면 외솔의 씨가름 체계 역시 『우리 말본』 온책의 출판보다 무려 9년 이상이나 앞서 틀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외솔의 씨갈이 국어학사 상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는 약소하게나마 씨의 뜻매김과 갈래를 중심으로 그 체계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① 기본자료

T3: 『우리말본』2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T4: 『우리말본』, 연세대학교 박물관 기록보존소 소장.

T5: 『우리말본』(특별보존본) 1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T6: 『우리말본』(특별보존본) 2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김민수·고영근 편(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책 ㉫11 『국어문법』』, 탑출판사.

김민수·고영근 편(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7책 ㉫45 『중등조선말본』』, 탑출판사.

김민수·고영근 편(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8책 『우리말본』』, 탑출판사.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1), 51~99쪽.

② 단행본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296-332쪽.

김석득(2000), 『외설 최현배 학문과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85-191쪽.

김완진, 안병희, 이병근(1985), 『국어 연구의 발자취』, 서울대학교 출판부, 81-127쪽.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 II』, 태학사, 814-851쪽.

이광정(2008), 『국어문법연구. 3, 한국어 품사 연구』, 역락, 163-180쪽.

③ 논문

서상규(2010), 『최 현배의 <우리말본> 첫재매 유인본 연구』, 『한글』 289호, 한글학회, p.151-178.

서상규(2011), 『최 현배의 <우리말본> 둘째매 유인본 연구』, 『한글』 291호, 한글학회, p.1-43.

허웅(1991), 『외설 선생의 정신 세계와 그 학문』, 『동방학지』 71, 72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p.1-3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ed process of Choe Hyunbae's system
of part of speech

Ju, Hyang-A · Kang, Kay-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established process of Choe Hyunbae's part of speech by the medium of *Urimalbon* mimeograph editions. Subjects of analysis are three types of mimeograph editions and *Urimalbon*(1937) etc. This study analyzes definitions and parts of each word classes. As a result, Choe Hyunbae's part of speech was already formed with theoretical criteria before 1937. Differences among several word classes indicate that Choe Hyunbae's system of part of speech was completed at long intervals. In this paper, it is noticed that Choe Hyunbae's system of part of speech has prestige on Korean linguistics.

Key-words : Choe Hyunbae, *Urimalbon*, Mineograph edition, Part of speech.

주향아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언어정보연구원)

주소 : 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516호

전화번호 : 010-3881-9148

전자우편 : arhapsody@naver.com

강계림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언어정보연구원)

주소 : 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515호

전화번호 : 010-6256-2645

전자우편 : lesath7@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